

건강정보

- 건강문제
- 치료방법
- 검사방법
- 생활습관 관리

심뇌혈관질환정보

약품/식품정보

장애/재활정보

희귀질환정보

암정보

응급상황정보

해외감염병정보

정신건강정보

원형탈모

개요

등록일자 : 2021-04-15 업데이트 : 2022-10-26 조회 : 38560 정보신청 : 89

개요-정의

원형탈모는 비교적 흔한 자가면역성 탈모 질환으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원형, 타원형 탈모반이 생깁니다. 탈모반은 대부분 두피에 발생하나, 눈썹, 속눈썹, 턱수염, 음모, 팔, 다리 등 모발이 있는 부위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개요-종류

원형탈모가 심해 두피의 모든 모발이 빠지는 것을 전두탈모(alopecia totalis)라 하며, 전신의 모든 모발이 빠지는 것을 전신탈모(alopecia universalis)라 합니다. 탈모가 후두부의 모발 경계선을 따라서 생기면 머리가 두 개 달린 뱀처럼 보여 사형상탈모(ophiasis)라 합니다. 드물게 원형이 아니라 안드로겐탈모 혹은 휴지기탈모처럼 모발의 밀도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미만성 원형탈모도 있습니다.

〈그림 원형탈모의 종류〉



개요-원인

〈그림 원형탈모 발생기전〉



1. 자가면역

면역이란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 등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방어하기 위한 작용입니다. 자가면역은 자기 몸의 일부를 이물질로 착각하여 공격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병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합니다. 원형탈모는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즉, 면역계가 자기 모발의 일부를 이물질로 인식하는 비정상적 면역반응으로 인해 모발이 빠지는 질환입니다.

2. 유전적 소인

원형탈모는 여러 유전자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의 10~42%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어린이 원형탈모 환자의 경우 더 높은 가족력을 보입니다. 최근 피부 면역 및 모발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와 원형탈모의 연관성이 보고되었으며, 다양한 원인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환경 인자

원형탈모 환자의 20~30%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이후에 탈모가 발생합니다. 스트레스는 원형탈모의 발생 및 악화와 관련될 수 있지만, 유일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환경적 원인이 원형탈모 발생 및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동반 질환

원형탈모 환자에서 전신홍반루푸스, 갑상선염, 당뇨, 백반증 같은 다른 자가면역질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피부염, 다온증후군, **편평태선** 등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개요-경과 및 예후

증상이 심하지 않은 대부분의 원형탈모는 자연 회복되거나 치료에 잘 반응합니다. 발생한 지 1년 미만인 한두 개의 원형탈모반만 있는 경우 약 80%에서 자연회복을 보인다고 합니다. 약 60%의 환자가 적어도 1년 내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재발이 흔해 약 40%의 환자에서 1년 내에 또 다른 원형탈모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형탈모 환자의 5%는 두피의 모든 모발이 빠지는 전두탈모로, 1% 정도는 전신의 털이 빠지는 전신탈모로 진행합니다. 전두 혹은 전신탈모는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탈모도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재발이 잦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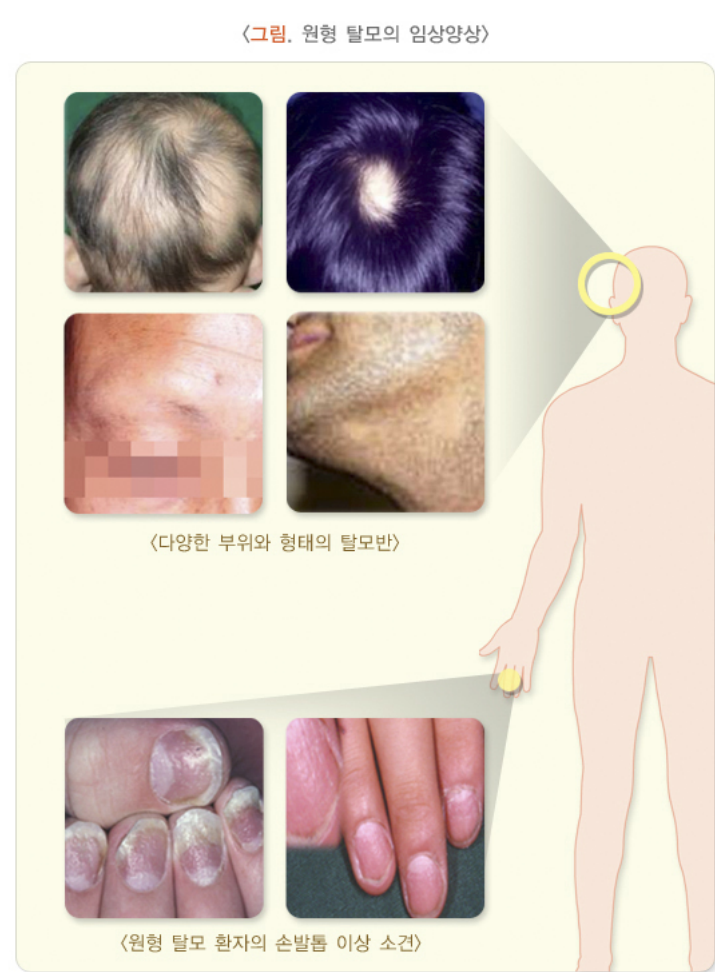
일반적인 원형탈모와 달리 2~3개월에 걸쳐 50% 이상의 모발의 빠지는 급성미만성 전두탈모는 대개 치료에 잘 반응하며, 자연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학 및 통계

세계 인구의 약 1.7%에서 일생 동안 한 번은 원형탈모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젊은 성인에게 발생하지만 어린이나 노인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

두피에 경계가 명확한 1~5 cm 직경의 원형 혹은 타원형 탈모반이 하나 혹은 여러 개 발생하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탈모반의 경계에 모발이 부러져 감탄 부호 모양(감탄 부호 모발)이나 검은 점(black dot)처럼 보이는 모발이 나타납니다. 탈모 부위는 약간의 가려움과 홍반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탈모반은 두피뿐 아니라 눈썹, 턱수염, 겨드랑이털, 음모 등 모발 부위 어디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발톱에 뾰족한 것으로 찍은 듯 오목한 패임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진단 및 검사

탈모의 임상양상, 손발톱의 변화를 관찰하고 모발 당겨보기 검사, 더모스코피검사(피부확대경검사) 등으로 진단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탈모반 가장자리 피부를 일부 떼어내는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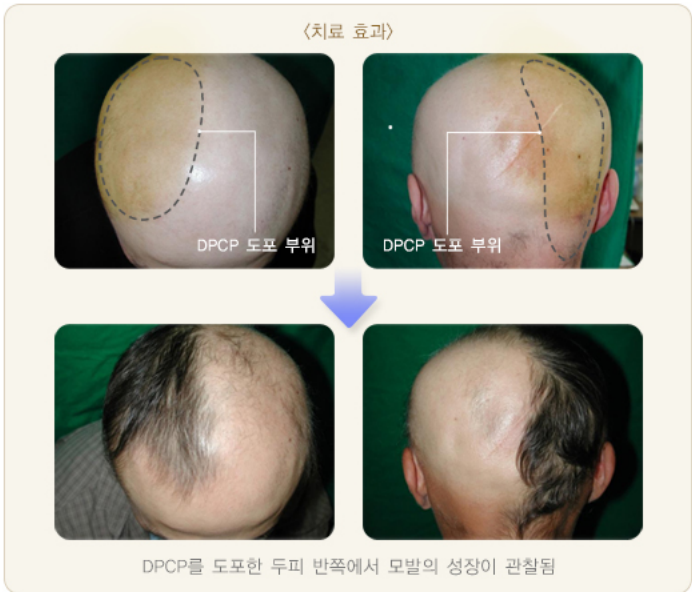
가벼운 원형탈모는 자연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마다 발생 연령과 침범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잘 관찰하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0세 미만 환자는 대개 스테로이드제와 함께 모발성장을 촉진시키는 미녹시딜을

국소 도포하여 치료합니다. 10세 이상인 환자 중 두피 전체 면적의 50% 미만인 침범된 경우 위 치료와 함께 스테로이드제의 병변 내 주사를 통해 빠른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시행할 경우 피부가 위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탈모반이 두피 전체 면적의 50% 이상으로 광범위할 경우 면역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림, 면역치료의 효과와 치료기전〉



※알레르겐 : 알레르기(접촉피부염)를 일으키는 물질

면역치료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두피에 도포하여 모낭 주위에 새로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발을 공격하던 인자들의 영향을 줄여 탈모 억제와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면역치료에 자주 이용되는 물질로 다이페닐사이클로프로펜온(diphenylcyclopropenone, DPCP)이 있습니다.

탈모가 급격히 진행한다면 스테로이드제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면 다양한 전신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스테로이드 중지 후 다시 탈모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 같은 면역조절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엑시머 레이저(excimer laser), 광선치료, 병동요법 등의 치료도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환자는 가발이나 영구화장(permanent makeup)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JAK(Janus kinase) 억제제가 원형탈모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존 치료에 반응이 없는 중증 원형탈모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아이들도 원형 탈모에 걸리나요?

A.

아이들도 원형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사춘기 이전 어린 연령에 발생한 경우 성인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즉 재발이 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하게 탈모가 일어나 전두 탈모, 전신 탈모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이들이 원형 탈모증이 발생한 경우 주의를 요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Q. 원형 탈모 후 흰머리가 나는데 왜 그럴죠?

A.

원형 탈모증이 발생하였다가 회복되는 경우 새로 나는 모발이 흰머리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형 탈모가 발생할 때 검은 머리만 빠지고 흰머리는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원형 탈모의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입니다.우리 몸에서 모발의 구성 성분 중 모발의 색을 내는 멜라닌 세포 혹은 그와 유사한 성분을 이물질로 생각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멜라닌 세포가 손상돼 추후 모발이 나올 때 흰머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Q. 스트레스도 별로 없는데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A.

흔히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와 관련되어 있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원형 탈모 환자의 약 23%에서 첫 발병에 심리적 스트레스가 관련한다거나, 원형 탈모 환자 중, 발병 전 6개월 내에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보다 2배 많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의 발생에 있어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에 있어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큰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원형탈모 발생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참고문헌

1. 피부과학 제 7판. Chapter 15. 피부부속기질환, p.434-435
2.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clinical dermatology. 13th ed. Chapter 33. Diseases of the Skin Appendages, p.750-752
3. Fitzpatrick's Dermatology in General Medicine. 9th ed. Chapter 87. Alopecia Areata, p.1517-152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게시물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